美 불교성직자, 진화론 서명운동 동참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 창시자 짐머만 교수 "환영한다"

美 생물학자 마이클 짐머만(60 · Michael Zimmerman)

미국 기독교, 유대교,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자(Unitarian Universalist)교회 등 기독교 계파의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 진화론 찬성에 서명하는 운동인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the Clergy Letter Project · 이하 서신프로젝트)'에 최근 불교성직자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는 2006년 美 생물학자 마이클 짐머만(60 · Michael Zimmerman) 워싱턴 에버그린 주립대 교수가 창립한 모임이다.

서신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theclergyletterproject.org)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진리와 현대 과학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공생할 수 있음을 믿는 선언문을 게재하고 서명에 동참한 성직자들의 이름과 지역 및 소속교회 등을 함께 싣고 있다.

8월 31일 현재 서명에 동참한 인원은 기독교 성직자는 12816명, 유대교는 494명,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 성직자는 260명, 불교는 19명이다.

각 종파의 성직자들은 "종교의식에서 사용되는 경전 및 성서는 적절하게 해석돼야 하며 과학적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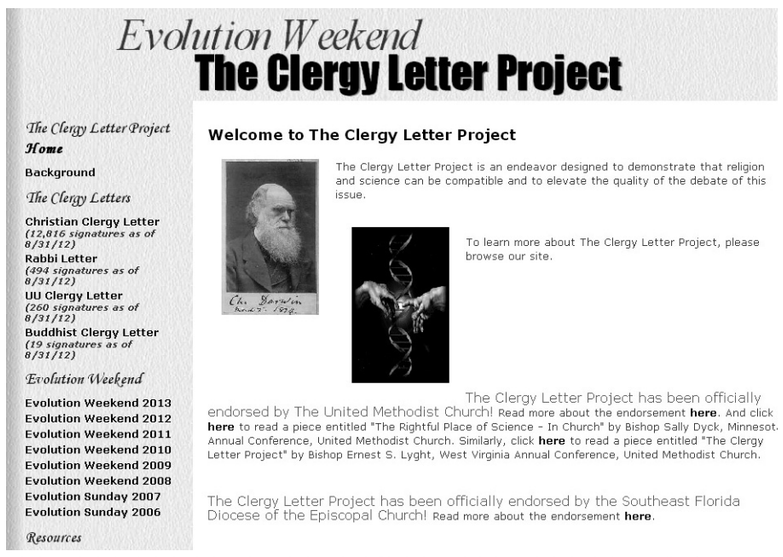
기독교 성직자 모임은 "우리는 진화론이 기초적인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 진리를 거절하거나 다른 가설처럼 취급하게 되면 과학적 무지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후세에게 이 무지함을 물려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우리는 학교 교육 위원들

기독교 성직자 중심 진화론 찬성
근본주의자에 대응해 불교도 참여
불교는 '합리적인 종교' 주장
"부처님 전생담 진화의 은유적 표현"

이 진화론을 인간 지식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 교육 과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과학으로 종교는 종교로 남을 것을 요구하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서로 다른 형태의 진리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교 성직자 모임은 "특정종교를 기반으로한 과학과 일반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교 성직자 모임은 달라이 라마의 "불교의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때 우리는 과학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이고 불교의 가르침을 은유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인용문을 언급했다.



마이클 짐머만 워싱턴 에버그린 주립대 교수가 창립한 모임 '미국 성직자 서신 프로젝트(the Clergy Letter Project)'의 공식홈페이지.

이어 불교 성직자 모임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종교다. 진화론의 특정적 과학이론이 부처님 가르침에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모든 일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돼있다는 연기(緣起)의 핵심 가르침이 이를 암시(대변)한다"며 "동물에서부터 인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윤회하며 삶을 산 부처님의 전생담은 삶에 대한 자연적 진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공립학교가 과학의 원칙적 이론과 일반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짐머만 교수는 "최근 불교가 동참한 데에는 창조론 교육을 내세우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주장에 대응해 나선 것"이라며 "진화론과 기후변화 등 종교적인 신념의 이유로 과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들을 위해서만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짐머만 교수는 "서신프로젝트 회원들은 미국 불교인들의 서명동참을 환영한다"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진화론을 널리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中 신화통신, 달라이 라마 감시한다"

캐나다 언론인, 인터뷰서 폭로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이 달라이 라마를 감시한다."

캐나다 출신 프리랜서 기자인 마크 부리(Mark Bourrie · 55)가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이 달라이 라마를 감시하는 것을 보고 일을 그만뒀다"고 폭로했다.

마크 부리씨에 따르면 신화통신 캐나다 오타와 지국은 4월 27~28일 오타와를 방문한 달라이라마의 주요 활동에 대해 비디오 촬영과 기록을 했다.

그는 "4월 27일 달라이라마가 회의장으로 들어설 때 신화통신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하는 것이 확실했다"며 "당시 내가 신화통신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마치 중국의 스파이로 느껴져 달라이 라마의 연설이 끝나자 마자 집으로 돌아가 오타와 지국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마크 부리의 주장에 대해 신화통신 오타와 지국은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9월 초 캐나다 국회의원이자 외교부장관의 국회비서인 밥데커 의원과 토론토 주재 중국 관영신화통신의 스룽(施蓉) 기자의 스캔들이 폭로된 적이 있다.

당시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중국은 줄곧 해외에서 정보를 적극 수집해왔다"며 "작년에는 캐나다 안전정보국(CSIS) 국장 리처드 패든이 중국 특무(스파이)가 이미 캐나다 정 치인들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고 경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리씨의 주장으로 중국 언론 해외 주재 사무실이나 특파원들이 중국 정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오래된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나은 기자

중국 신화통신의 달라이 라마 감시활동을 폭로한 캐나다 출신 프리랜서 기자인 마크 부리(Mark Bourrie)

말레이시아, 세계불교회의 개최

소승 · 대승 불교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웰빙의 삶을 사는 방법을 토론하는 세계불교회의(World Buddhist Conference)가 말레이시아에서 11월 3~4일 개최된다. 쿠알라룸프루 이스타나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정적인 감정 초월하기-행복한 웰빙의 삶 창조를 위해'를 주제로 한다.

기조연설을 맡은 타이 시투파 린포체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을 주제로 의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페낭에 위치한 단향사 주지 웨이우 스님은 유치원 고아원,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불교의 보리심을 어떻게 사회에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이 밖에 쁘라 수간다, 게쉬 다둘 남걀, 툽텐 쵸기 등 세계 저명 학자들이 나와 발제를 맡는다. 참가 희망자는 www.wbc.my 는 방문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캄보디아 불교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31)

이안 해리스 英 세인트 마틴대 교수

이안 해리스(Ian Harris · 60 · 사진) 영국 세인트 마틴 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불교를 깊게 연구해 윤리학 · 정치학 분야에서 불교적 접점을 찾으려는 학자다.

영국 남부 켄트 지방의 길링함(Gillingham)의 그래머 스쿨(Grammar school)을 졸업한 해리스 교수는 랭카스터대 종교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비교종교학의 중심지역할을 하던 랭카스터대에서 해리스 교수는 테라바다 불교를 중심으로 초기불교를 연구하다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남편인 마이클 아리스(Michael Aris)를 찾아 옥스퍼드대로 향했다.

마이클 아리스는 옥스퍼드에 티베트학 연구가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한 영국인 티베트 학자로 해리스는 마이클 아리스 가족과 인연을 맺고 동남아시아 불교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은 해리스 교수는 1985년 랭카스터대학 종교학과에서 초기불교철학의 역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남부 그래머스쿨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1987년부터 랭카스터의 세인트 마틴대학에서 종교학과 강사로 재직하게 된다.

당시 불교윤리학(Buddhist Ethics)분야에서 주로 활동한 해리스 교수는 불교와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으며 데미언 키온(Demian Keown · 런던 골드스미스대 인도종교학과 교수)와 〈불교윤리학 입문(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의 저자인 피터 하비(Peter Harvey · 英 썬더랜드대 교수)와 교류하면서 불교윤리학이 불교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해리스 교수는 영국불교학회(UK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의 창립멤버로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윤리학회(Journal of Buddhist Ethics)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 해리스 교수는 영국연구원(British Academy)으로부터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위한 연구기금을 받아 2002년까지 4회에 걸쳐 캄보디아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미얀마 · 태국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캄보디아 불교를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美 하와이대 출판부에서 〈캄보디아 그 역사와 실천(Cambodia Buddhism: History and Practice)〉이라는 책을 출판해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당시 캄보디아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개혁의 바람이 불던 때로 크메르 루즈의 탄압으로 파괴됐던 불교가 새로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책에서 그는 앙코르 문명의 쇠퇴와 함께 테라바다 계열의 남방불교가 캄보디아에서 점차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풍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다.

테라바다 중심 초기불교 연구
아웅산수치 부부와 인연
동남아 불교에 관심가져
윤리 · 정치학과 불교 접점찾아

또한 그는 책에서 크메르 루즈에 의해 거의 파괴됐던 캄보디아 불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2005년 세인트 마틴대 종교학과 교수로 임용된 해리스 교수는 불교와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불교, 권력 그리고 정치질서(Buddhism, Power and Political Order)〉라는 책을 출판했다.

책에서 그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불교가 정치권력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교류해 왔는가를 살피면서 종교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밖에 해리스 교수의 대표적 논문으로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불교는 얼마나 환경친화적인가?(How Environmentalist is Buddhism?)', 'Religion XXI(1991)', '불교환경론 첫걸음 : 임시적 유형(Getting to Grips with Buddhist Environmentalism: A Provisional Typology)', 'Journal of Buddhist Ethics(1995)',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ed. Damien Keown, Curzon (2000)'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두타선원(頭陀禪院) 文化센터 수강생 모집

【수류도, 참선, 불교교리, 사경, 사불, 서각, 한국화】

개강 :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임을 알아야 성품이 보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금번 두타선원 문화센터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생활속에서 간화선과 자연과 하나 되어 수류도(水流道)의 몸수련, 마음수행을 동시에 이루고 유식 30송의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과 사경을 통해 혜안을 통투하고 한국화와 서각을 통하여 작품세계에 깊이 몰입하므로 견성을 체험하시어 깨달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과 시간표】

	오후 2시 ~ 4시	저녁 6시30분 ~ 9시30분
월	불교입문 교리 및 경전강의 동국대 박사과정수료 〈정화스님〉	수류도법 지도자 과정(스님들 포교에 도움) 몸수련, 마음수행, 몸과 마음은 하나 〈본선원장 법헌스님〉
화	간화선 생활수행 네가있어 내가 존재한다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유식 30송 불안, 걱정 제거법 수행 〈무아선원장 혜원스님〉
수	수류도법(水流道法)수련 몸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휴면 근육재생 및 호흡법 〈법헌스님〉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32체 〈법헌스님〉
목	서각 및 목공예. 기초-작품까지 대한민국 미술대전초대작가 〈대한명인심사위원 죽허 김정규〉	한국화, 문인화(사군자) 대한민국미술대전초대작가 〈심사위원 송원 이연재〉
금	사경, 범서기초, 42수주진언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금강경 32체 〈법헌스님〉	수류도법(水流道法) 허상의 관념관습을 버려야 참마음을 알게된다 〈법헌스님〉

전화 02)747-4268. 010-4413-4268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6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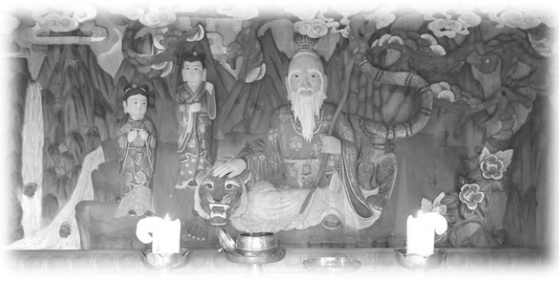
* 종무직 봉사자 모집 (혜택 : 수강하고자하는 과목 모두 무료)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4,5번 출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 사찰

봉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석가세존 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에서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흥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매년 지내왔습니다. **산신신앙은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민간의 고유 신앙이며 산신대재는 불교에 수용된 한국 종교 특유의 기원재입니다. 득남득녀, 건강발원, 좋은인연, 시험합격, 사업번창 등 소원을 속히 성취**시켜주시는 호법신장님이 바로 산신님입니다. 올 가을에도 변함없이 여러 불자님과 더불어 힘든 우리들의 삶을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으로 풀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산신대재를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고 스님들의 독송이 온 산에 울려 퍼질 때 금강산과 하나 되어 건봉사 산신님의 크신 원력을 체험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6년(2012년) 10월 6일 (토) (음 8.21) 오전 10시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기도동참금 : 5만원 (당일 포함 7일간 축원)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접 수 문 의 : 전화 033)682-8100-2 FAX 033)682-5994
차 량 문 의 : 서울 _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VIP관광)
부산 _ 불광회 박길하 거사님 011-855-8741
충청 · 대전 _ 불자회 011-9415-8717
전남 · 광주 _ 정길태 011-604-2377 (에버그린 관광)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 _ 02)979-0108

당일은 혼잡하니 미리 종무소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033)682-8100-2